

100여곳 넘는 폐사지 대부분 흔적조차 없어



2년여에 걸친 '잊혀진 가람탐험'이 국토의 최남단 제주도에 발길을 멈춘다. 여기서부터는 푸른 바다. '피안의 감성'을 잃어버린 범부의 몸으로는 더 이상 빠져서리는 구도(求道)의 노(櫓)를 저울 수가 없다. 그동안 북방한계선 넘어 석왕사지, 금강산 신계사지에서부터 무안 땅 총지사지, 경주의 감은사지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의 1백여 폐사지를 탐사했고, 그 가운데 40여 곳을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하였다. 이 기획은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지금은 사라져 폐허가 된 전국 수많은 사찰 터를 찾아 과거와 현재를 조망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역사의 심연에서 우리를 기다린 이는 제주불교의 '지킴이' '정토신문'의 강석훈 차장이었다. 나와 함께 2

년여의 세월을 들뜬으로 쏘다니며 쓸쓸한 폐사지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은 고영배 기자가 미리 연락해 놓은 덕분이었다. 수시로 점심을 거르며 수백리 비포장 도로를 마다 않고 달린 고 기자의 기자정신 덕분에 독자들은 생생한 폐사지의 근황을 접할 수 있었다. 제주 지역은 한때 '절(刹)오백, 당(堂)오백'이라 불릴 만큼 불교 교세가 크게 번성했던 곳이다. 특히 수정사지(水精寺址), 법화사지(法華寺址), 원당사지(元堂寺址)는 제주의 3대 사찰로 불릴 만큼 사세를 크게 떨친 거찰들이었다. 그 외 1백여 곳이 넘는 폐사지들이 도내 곳곳에 널려 있으나, 불교와 당국의 무관심 속에, 혹은 세월의 물결에 휩쓸리고, 혹은 개발의 논리에 밀려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총면적 1,847km², 국토의 1.8%에 불과한 제주도. 그러나 '아시아의 하와이', 세계적인 휴양 도시로 각광받는 제주도는 한국불교사에 있어서도 매우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선 천체가 퇴적암층과 현무암으로 되어 있지만, 흑갈색의 화산회토 사이에 실직한 절사들이 붙어있는 것처럼, 대동항쟁의 격전지, 유배지, 4.3 사태의 발생지답게 탐라의 세월이 피와 눈물로 얼룩졌지만, 불멸만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웅성같은 정법의 향기를 꽃피워 왔던 것이다.

첫 번째로 찾아 간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한 수정사지는 사지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전벽해(桑田堯



수정사지 한켠에 슬픈 옛 기억들을 안은 부재가 원당사 안에 나란히 줄지어 있다.



제주도에서 유일한 고려시대 불교문화재인 원당사지 5층석탑(보물 1187호).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다.

과거 '절 오백, 堂 오백'으로 이름 떨쳐 법화·수정·원당사지, 제주도 3대 폐사지 교회 회단식 된 '법주' 모습에 황당함과 부끄러움

해가 된 곳이어서 조립부터 제주불교의 쓰라린 추억을 실감케 하였다. 5천여 평 사지 대부분이 훼손되어 일부는 공원으로, 일부는 교회부지로 뒤바뀌어 조선 초 노비 130여명이 넘는 비보사찰(禪補寺刹)이라는 명색이 무색할 정도였다. 그나마 제주시가 1998년 외도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정사 유적지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시굴과 발굴조사를 한 후, 표석을 세우고, 공원을 조성하여 더 이상 사지 훼손을 막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정토신문 강 차장을 따라 길 건너 '성지교회' 구내로 들어선 순간, 세월이 매몰된 폐사지를 찾아 햇빛을 쬐고, 불자들의 눈길을 붙잡으려 전국을 달려온 당찬 신심은 참으로 기막힌 광경 앞에 맥이 풀리고 말았다. 교회 마당 어귀에 회단식으로 드러누운 '석주'와 '석등' 부재의 막막한 표정은 후손들의 게으름에 대한 질책이다 못해 섬뜩한 전율로 휘감겨 왔던 것이다. 공원 주변의 나이 먹은 몇 그루 소나무를 베지 않았고, '원당사' 사명이 걸린 웅장한 새 가람이 옛 터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수정사지의 참배는 망망대해에 뛰어든 것 만큼이나 황당했을 것이다.

삼양동 원당모름 동남쪽 중턱에 위치하는 원당사지는 고려의 몽고 식민지에 대한 사연을 짊어 지며

게 하는 절터이다. 원당사는 고려말 원나라 왕실에 공녀로 끌려간 기씨가 아들을 낳기 위해 기도처로 강건했다고 한다. 기씨는 황제의 총애를 입고 제2황후가 되자 왕자를 낳기 위해 고심하던 중, 북두칠성이 비치는 동쪽 바다의 삼정칠봉(三鼎七峰)을 찾아가 기도하면 소원을 이룬다는 풍수사의 말을 믿고 이곳을 기도처로 정했다고 한다. 원당사지에는 제주도 유형문화재 1호이자 유일한 고려시대 불교문화재인 원당사지5층석탑(보물 1187호)이 남아있다. 원당사지5층석탑은 제주 현무암으로 만들어졌으며, 3.85m의 높이에 측면 너비가 84cm로 1층 기단과 탑신이 심하게 좁아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주시는 현재 원당사지 석탑 일대 1만여 평의 대상 면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3억7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5층 석탑을 중심으로 한 원당사지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 원당사지는 조선 효종 때까지 존재하다가 훼손된 것을 1914년, 제주불교의 중흥조라 불리는 안봉려관 스님이 중창하여 불탑사로 개칭하였으며, 최근 사명을 다시 이은 새로운 원당사가 길 건너 쪽에 들어서 삼양봉 기슭을 불법의 성지로 단장하고 있다.

법화사지는 서귀포시 하원동 우회도로 북쪽에 위

치하고 있다. 1982년부터 대대적인 발굴과 복원작업이 이루어져 전국최대의 구품연지와 극락전, 선원, 문루 등 13개 동의 당우가 복원되었다. 명실상부한 제주도에 최고의 가람으로 역사교육의 산실이자, 도민의 정신적 귀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법화사지는 한때 사노(寺奴)가 280여명에 이를 정도로 융성했으나, 조선시대의 배불정책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여 1530년경에는 완전히 폐사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1920년대 후반 겨우 포교소로 사명을 되살렸으나, 이 역시 1948년 4·3사건 당시 소거령으로 다시 불타고 말았다.

제주도민과 영육의 부침을 거듭한 법화사지는 '고려왕실'의 원찰이라는 설과, 원(元)에 의한 중창설 등 학계의 이견이 분분하나, 근래에는 청해진(靑海島)을 개설했던 해상왕 장보고대사가 해상경영의 본찰로 삼았다는 이른바 '법화삼사'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가 장보고의 해상왕국 중심지인 완도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근의 대포(大浦)라는 지명이 '당포(唐浦)'라는 옛 명칭에서 비롯되었다는 구전을 감안하면 이 주장은 매우 타당성이 높다. 그렇다면 법화사지 바로 이 곳은 1천5백여 전 '바다의 신' 장보고가 해상왕의 응지를 품었던 것처럼 현정권이 꿈꾸어 할지 모른다. 역사는 윤희한다. 한 때 도랑물로 폐허 속에 잠겼던 법화사지 구품연지의 물결도 새로운 세기를 맞아 파도가 되어 먼 바다로 굽이친다.

〈사진, 진각북지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그동안 '잊혀진 가람탐험'을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민과 영육의 부침을 같이했던 법화사지터.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대장전(보물 제145호)

목각리상 및 목각대(보물 제989호)

경부전 지방보살·업경대

보광대전 삼존불

전영당

교지(보물 제725호)

자유루(문화재 자료 제143호)

영남제갈관원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되어 구산전문의 5백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신맥을 이어 왔으며,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계,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천년고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등 다수의 보물 및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윤장대는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많은 중생들이 장성껏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로우시며 영험한 부처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윤해 감신년에는 윤달이 있습니다. 윤달에는 '풍속에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를 만드는데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윤달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 와서 불공을 드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여 사방의 노인들이 분주히 달려오고 다 모여 모인다.'고 합니다(동국세시기). 특히 윤달에 생전에수제를 행하기 전에 방생과 사찰순례를 먼저 하면 불보살님의 무량한 가피가 한층 더 할 것이라 하여 사람들은 이윽없는 절들을 찾아 방생을 합니다.

용문사에는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경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용문사에 오셔서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모든 액이 소멸되고 바라는 바 소원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함장

용문사 오시는 길

주소 : 동서둘러미널 송림(06:4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수송차(서울)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C
수송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C
수송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C

삼사순례도

경천저수지 (10분 소요) | 용문저수지 (5분 소요)
대승사 | 김용사 | 용문사 | 부석사 | 청량사 | 봉경사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저물 체험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